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10월 15일(화)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예방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오늘(현지 시간 10/15, 화) 한-베트남 관계발전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다층적, 호혜적, 실질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또 럼 당서기장의 조기 방한 초청을 담은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장 특사의 방문을 환영하고,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본인의 당서기장 취임 후 첫 통화에 이어 이번에 특사 파견과 친서를 통해 한-베트남 관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재차 전달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협의를 통해 양측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에 기반한 정치적 신뢰 강화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토대라는데 공감하고, 2025년 베트남 개최 P4G 정상회의와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여러 계기에 양국 간 정상급 상호 방문을 계속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경제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첨단·미래 산업, 과학기술, 핵심 광물 공급망, 교통·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베트남의 법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과 방산 분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 및 인태지역의 바람직한 규범 기반 질서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장 특사는 이번 베트남 방문 계기에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부총리 겸 외교장관 및 「레 화이 쑹(Le Hoai Trung)」 당 대외관계위원장과도 각각 면담을 갖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을 포함한 양국 간 합의 사항 이행, 인적교류 활성화와 상호 재외국민 안전·편의 제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포함한 자유·평화·번영의 인태지역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붙임: 또 럽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예방 사진. <끝>